

세금 때문에... 헥터 떠난다



소득세법 개정에 거주자 분류
내년 납부할 세금만 10억여원
KIA “새 외국인 투수 조만간 발표”

KIA 타이거즈의 ‘V11’을 이뤘던 ‘외국인 트리 오’가 1년 만에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됐다.

헥터의 답변을 기다려왔던 KIA가 결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KIA 우승의 주역으로 함께했던 베나디나, 팻틴 그리고 헥터까지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새 얼굴로 채워진다.

KIA 관계자는 4일 “헥터 노예시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헥터를 대신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달 20일 좌완 팻틴과 외야수 베나디나의 자리를 채울 외국인 선수를 영입, 발표했다.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가진 우완 제이콥 터너(27·우투우타)와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외야수 제레미 해즐베이커(31·우투좌타)가 그 주인공이었다.

KIA는 ‘기복’과 ‘하락세’라는 부분을 고려해 팻틴과 베나디나와 작별을 고했지만 헥터에 대한 시선은 달랐다. 2019시즌에도 헥터를 선발한 쪽으로 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계산이었다.

올 시즌 기대에는 한참 부족했지만 헥터는 2년 연속 200이닝을 소화하면서 각각 15승과 20승을 수확하는 등 ‘계산이 서는 카드’였다. 헥터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보였지만 ‘세금’이 헥터 잔류의 걸림돌이 됐다.

올 시즌에도 헥터는 세금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 선수들은 ‘비거주자’로 분류해 급여에서 소득세 22%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2015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 소득법상 ‘거주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5억원 이상의 경우는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올 시즌 30만 달러 이상된 총액 200만 달러를 받았던 헥터의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 시즌 중반 2015년 이후 미납했던 세금 고지서를 받았던 헥터는 내년 시즌 그대로 KBO리그에서 뛸 경우 소급분까지 1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헥터의 모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헥터는 고향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 시즌 팀 성적과 개인 성적 하락 여파로 연봉 삭감도 불가피한 만큼 헥터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KIA의 바람에도 헥터는 올 시즌이 끝난 뒤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면서 작별을 예고했었다. KIA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체 자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헥터와의 재계약 불발에 대비했었다.

결국 정식으로 헥터와의 결별이 확정되면서 KIA는 새 판을 짜서 2019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드리치

‘발롱도르’ 품다

메시·호날두 ‘10년 천하’ 막내려

크로아티아 출신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33·레알 마드리드·사진)가 드디어 ‘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드리치는 4일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18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발롱도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이외의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2007년 카카(브라질) 이후 11년 만이다.

발롱도르는 2008년부터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통합상을 수여한 6차례(2010~2015년)를 포함해 메시와 호날두는 각각 5번씩 상을 받았다.

그러나 올 시즌 메시와 호날두는 월드컵 등 올해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모드리치가 발롱도르의 새 주인 공이 됐다.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책임지며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국 크로아티아를 준우승으로 이끌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모드리치는 이미 UEFA 올해의 선수상 등 각종 트로피를 휩쓸며 발롱도르 ‘메날두 시대’의 종



식을 예견했다.

한편 2016, 2017년 수상자인 호날두는 발롱도르 투표 2위에 올랐다.

양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칼리앙 음바페(파리생제르맹)가 뒤를 이었고 메시는 5위에 그쳤다.

모드리치는 수상자로 호명된 뒤 “최고의 순간은 절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이 상을 받기까지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르웨이 출신 아다 헤게르베르그(23·리옹)는 신설된 여성 발롱도르의 첫 수상자가 됐다. 음바페는 21세 이하 선수에게 수여하는 ‘코파 트로피’를 받았다.

/연합뉴스

메시의 바르샤-남북 단일팀 대결 성사될까

내년 7월 경기 제안...축구협 “불가”·프로연맹 “내부 검토”

남북 단일팀과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FC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뛰는 바르셀로나가 내년 7월에 남북 단일팀과 친선경기를 희망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내년 7월에 남북 단일팀과 경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부는 지난달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받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

남북 대표팀이 한 팀을 이뤄 바르셀로나와 경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7월에는 대표팀 소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불가’ 통보를 했다.

내년 7월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한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대이가 없다. 같은 해 6월에는 친선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9월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치러야 한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바르셀로나와 맞붙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부는 차선책으로 프로축구연맹에 바르셀로나와 친선경기 가능성을 문의했다. 프로연맹이 지난 2010년 ‘바르셀로나 초청 K리그 올스타전’을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해 10월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는 이동국(전북)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메시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에 2-5로 역전패했다.

프로연맹은 남북 단일팀을 이뤄 바르셀로나와 친선경기를 벌이는 것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하지만 K리그 경기 일정과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바르셀로나가 경기할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갑질 논란’ 김경두 가족 “결링 물러나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결링 ‘팀 김’의 호소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사진) 전 대한결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결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4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번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결링선수들의 호소문으로 인해 선수 본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과 격정을 끼쳐 드렸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특히, 선수들에게 저의 표현방식의 미숙함으로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팀김 선수들은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와 경북도, 의성군 등에 호소문을 보내 김경두 전 부회장



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폭

로했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에게 폭언을 듣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저와 우리 가족은 이 시점부터 결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부회장과 감·장 감독 부부는 팀김 선수들의 호소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북도 등의 합동 감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에이스 나상호 벤투호 승선

23명 아시안컵 소집 명단 발표...조영욱·한승규 등 4명 새 얼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조영욱(서울), 한승규(울산) 등 총 4명의 새 얼굴이 합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비 조기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3일 K리그 시상식에서 K리그 2 MVP에 오른 광주 FC의 에이스 나상호도 앞선 호주 원정에 이어 다시 한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총 23명의 선수 중 눈에 띄는 이는 조영욱이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등 각급 대표팀에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한승규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탈락의 아픔을 딛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 밖에 전북 미드필더 장운호와 수원 미드필더 김준형 등 1996년생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조기소집은 국내 프로축구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등 아시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렵파와 중동파는 최종 명단 발표 시 포함할 예정이다.

나머지 선수들의 면면은 이전과 비슷하다. 공격수 황의조(갑바 오사카)는 이번 없이 합류했고, 포항 김승대, 인천 문선민이 공격라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 여파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한 황인범(대전)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진수(전북)는 지난 3월 부상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대표팀은 11일 울산에 소집해 훈련을 소화한다. 이후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된 뒤 22일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할 예정이다.

◇축구대표팀 12월 조기소집 명단(23명)
▲GK = 김승규(빛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FC) ▲DF = 김민재, 이용, 김진수(이상 전북), 김영권(광저우), 권경원(벤진), 박지수(경남), 김문환(부산), 박주호(울산), 홍철(수원) ▲MF = 황인범(대전), 주세종(아산), 이진현(포항), 한승규(울산), 김준형(수원), 장운호(전북) ▲FW = 황의조(갑바 오사카), 나상호(광주), 문선민(인천), 김승대(포항), 조영욱(서울) /연합뉴스

